

“5·18 유족으로 광주 아들로 오월정신 잇겠습니다”

5·18 40주년 기념식서 대학생 첫 경과 보고 조선대 차경태 씨

시위 중 붙잡혀 교도소 석방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차중성 씨 조카 가짜뉴스 맞서 진실 알리기 활동...“새로운 40년 위해 청년들 관심 필요”

5·18 40주년 기념식이 18일 5·18민주광장에서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올해는 ‘경과 보고’ 순서에서 지난 기념식과 사뭇 다른 인물들이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올해 경과 보고를 맡은 이는 5·18 유공자 가족이자 광주 청년을 대표하는 차경태(조선대 1년) 씨와 김윤이(여·조선대 2년) 씨. 지금까지 5·18 주요단체장이 경과보고를 맡았던 관례를 깨고 최초로 5·18 유가족에게 역할이 주어졌다. 5월 정신을 이어갈 젊은이들에게 무대를 내준 것이다. 경과보고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 역사를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차씨는 “유가족으로서 40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광주를 대표하는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5·18희생자인 차중성씨의 조카다. 고 차중성씨는 1980년 5월 당시 금호고 3학년이었다. 19일 친구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무등경기장 부근에서 계엄군과 마주쳤다. 심한 구타를 당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모진 고문을 받고 7월 초 석방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1983년 21세 나이로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큰아버지의 사연은 제게 5·18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과 사명을 심어줬어요. 저도 큰아버지의 뜻을 따라 늘 5·18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39주년 기념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애국가 제창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전남대·조선대 학생대표 4명과 5·18 희생자 유족 4명이 합

께 만든 무대였다. 차씨는 “큰 무대라 떨렸지만, 실수 없이 잘 해내 자신감을 얻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4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식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올해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한 것도 진실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요즘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지적하고 진실을 알리는 글을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실을 깨닫고 정확한 사실만을 알게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차씨는 5·18이 새로운 4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청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수십년이 지난 뒤 5·18 정신이 잊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5·18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들이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알리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도서관, 지역 주민 독서활동 장려

대출권수 기준 청소년·성인 부문 우수 다독자 15명 시상

화순공공도서관(관장 박경석)은 우수 다독자 1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화순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 생활화에 앞장선 우수 다독자를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하고 있다. 하반기 선정은 10월에 이뤄진다.

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눠 5명씩 총 15명을 선정했다.

박경석 관장은 “우수 다독자 시상으로 다독자를 격려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껴 책 읽는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광주신세계, 취약계층 어린이 150명에 ‘놀이키트’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오른쪽 세 번째)가 코로나19 사태로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 150명에게 ‘놀이키트’를 지원한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광주시 서구, 희망전구 기아대책 충청호남영남부와 후원금 1000만원 전달식을 열었다.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어린이를 위한 ‘놀이키트’(Kit) 지원에 쓰인다.

놀이키트는 입체 퍼즐과 수학놀이 블록세트 등 9가지로 구성됐다.

후원금은 광주신세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동훈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광주신세계의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한국학 호남진흥원-광주전남연구원 협약



광주문화재단과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학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지난 15일 광주문화재단에서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종범 원장, 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지역학 진흥 등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내용은 지역학 진흥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양질의 지역학

보급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지역학 진흥 목적의 홍보에 관한 협력 등이다.

2017년 설립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역 고문서 번역과 연구 등을 통해 지역학 기초연구를 다지는 데 힘쓰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시·군·구 단위 지역학과 지역학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고유한 문화 자산 발굴과 문화적 활용, 대시민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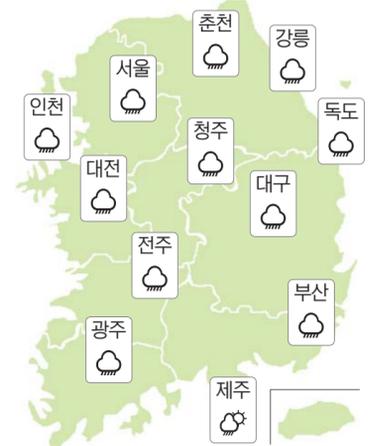
해돋이	05:26	달뜨기	03:43
해지기	19:33	달지기	16:16

우산 챙기세요

대부분 해상서 바람 강하게 불겠다.

광주	흐리고비	12/17	보성	흐리고비	10/17
목포	비온뒤맑	13/15	순천	흐리고비	12/18
여수	흐리고비	14/18	영광	흐리고비	12/15
나주	흐리고비	11/17	진도	비온뒤맑	12/17
완도	흐리고비	13/19	전주	흐리고비	13/17
구례	흐리고비	11/17	군산	흐리고비	12/17
강진	흐리고비	11/18	남원	흐리고비	11/16
해남	비온뒤맑	11/16	흑산도	흐림	13/16
장성	흐리고비	11/1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2.0~3.0	2.0~3.0	2.0~3.0
	면바다(북)	3.0~5.0	3.0~5.0	3.0~5.0
남해서부	앞바다	2.0~3.0	2.0~3.0	2.0~3.0
	면바다(서)	2.0~4.0	2.0~4.0	2.0~4.0
	면바다(동)	2.0~4.0	2.0~4.0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27 17:46	00:05 12:15
여수	00:58 13:18	07:15 19:35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관심	보통	좋음

◇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	☀	☀
11/21	13/24	14/25
23(토)	24(일)	25(월)
☀	☀	☀
14/25	15/25	15/25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구제길(세종요양병원 이사장·광주시 동구체육회장)·장하영씨 장남 영진군, 송하백·김명옥씨 장녀 수현양=23일(토) 오전 11시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열두채.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의문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시립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요일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결혼가정·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 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